

[새봄 기층 탐방]

진한 민속의 멋, 정월대보름 웃놀이 신난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웃놀이대회’ 300여명 선수 참여



웃놀이 한 장면

매년 설이면 길림시 조선족사회에 불어오는 웃놀이 열풍이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별관 다기능홀에서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웃놀이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이른아침부터 단정한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길림시 조선족 사회각계 인사들이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웃놀이를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길림시 조선족 유치원과 중소학교, 길림농업대학, 북화대학 등을 찾아 특강을 진행해왔다.”며 “덕분에 길림시에서는 웃놀이가 어른부터 아이까지, 타민족과도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로 자리잡았으며 대보름과 단오 등 각종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종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선수와 관중들로 북적이는 현장은 경기 시작전부터 명절의 뜨거운 분위기를 가득차다.

오전 8시, 1층과 2층 홀에 마련된 총 14개 율판에서 동시에 경기가 시작됐다. “모야!” 하는 함성과 함께 펼쳐지는 승부에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 총지휘를 맡은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 정민 관장은 “전통

행사장 입구에는 조선족 전통 떡 시식·판매 코너가, 1층에는 조선족 서예애호가들의 작품 전시장이 마련되어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현장을 생중계하는 ‘왕홍’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청년부와 로년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길림시 조선족중요예술관, 조선족로인협회, 녀성협회, 과학기술자협회, 기업가협회, 아리랑합창단, 탁구동호회, 친구팀, 동창팀 등 각 계층으로 구성된 50여개 팀의 약 300명 선수가 참가했다.

조선족은 오랜 농경생활 속에서 락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를 담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창조했으며 그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웃놀이이다. 농경사회에서는 한해 농사를 마친 후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웃놀이를 즐겼다.

지난 1970년대말부터 길림시조선족중요예술관은 이 전통을 지역사회 정례 문화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웃놀이대회를 조직해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호응 덕분에 웃놀이는 시급과 성급을 거쳐 2021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웃놀이 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어김없이 열리며 길림시 조선족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차영국기자



설명절 기간

‘100개 단체 100개 장소 순회’ 공연 열기 뜨거워

최근, ‘100개 단체 100개 장소 순회·길림 관광’ 설 기간 특별 공연이 길림시 현천령공원 망운심구방(望云捨致坊)에서 성대하게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년말년시 정 가득한 문화 향연을 선사했다.

저녁 6시, 높다란 루카에 마련된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고창팀이 <상사요>, <녀아정> 등 고풍스러운 노래를 먼저 선보여 순간적으로 시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노래 <대화교>가 현장의 열기를 달구었다. 국풍 어리광대의 익살스러운 공연에는 끊임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클래식 노래 <철혈단심>은 관객들의 합창을 이끌어냈고 마술 <번화사금>(繁花似锦)은 새봄의 길운을 전달했으며 대미를 장식한 천극(川劇)은 분위기를

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경지도 감상하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재밌어요!” 아이를 데리고 장춘에서 강성으로 무송관광을 온 리씨 관광객이 흥분하여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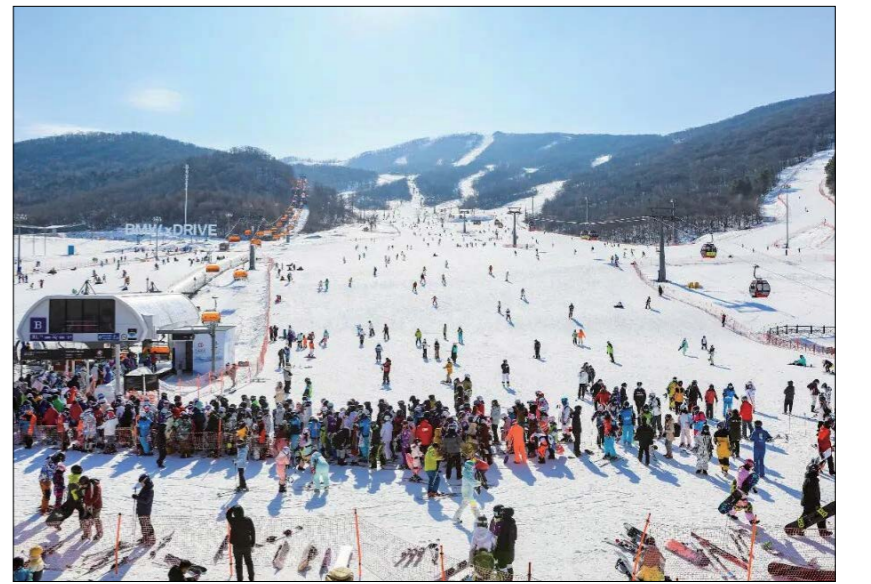
시민 장수매씨는 “<철혈단심>은 우리 세대의 추억인데 여기서 보고 들으니 분위기가 특히 짙네요.”라고 말했다.

고풍스러운 민속거리의 날아오른 처마 아래 붉은 등불과 무대 조명이 어우러지며 공연무대와 하나되어 극장의 경계를 허물었다.

망원심구방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차례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길림에서 새봄을 맞이하는’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길림일보

쌍백만 돌파!

길림시 두 대형 스키장, ‘스키천국’ 선두주자로



북대호스키리조트

2025-2026 스키 시즌, 길림시 방설관광이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웠다. 북대호와 송화호 두 대형 스키장의 루적 방문객수가 모두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길림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백만명급 스키장을 보유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북대호스키리조트는 루적 방문객 102만 4,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고 지난 시즌보

다 11일 앞당겨 백만명 돌파를 달성했다. 송화호리조트는 루적 방문객 100만 1,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지난 시즌보다 무려 25일이나 앞당겨 백만명 고지를 넘어섰다.

본 스키 시즌이 시작된 후 두 스키장의 일평균 방문객수는 각각 1만 명을 상회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75%, 26.4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길림일보

하늘높이 나는 연 강성에 활기 더하다

—2026 길림 북산 제 37 회 전통민속축제 연날리기대회 개최



하늘높이 떠있는 연

길림시 북산 인민광장, 비록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없었지만 수많은 생동감 넘치는 색깔들이 재빛 하늘을 가득 매웠다.

최근, 2026 길림 북산 제 37 회 전통민속축제 연날리기대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관중의 정취와 말따해의 새해 축복을 담은 백여개의 연이 하늘로 날아올라 새해 체색 민속 풍경을 그려냈다.

당일 오전 9시 반, 인민광장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연날리기대회가 시작되자 길림시연운동협회 회원들이 곳곳을 오가며 손끝을 날렵하게 움직이는 사이 다양한 모양의 연들이 미풍을 타고 천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보세요. 이렇게 끈을 꼭 잡고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날려야 해요. 서두르면 안됩니다.” 72세의 윤원길씨 손가락에 박인 굳은살이 실에 스친다. 이는 20여년 동안 연과 함께한

흔적이다. 협회의 ‘연 베테랑’으로서 연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활짝 번졌다.

“우리 협회는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았어요. 산둥 위팡(潍坊) 국제 연대회, 전국 연엘리트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죠.” 그는 릴(线轮)을 가볍게 돌리며 웃으며 말했다. “올해 설에 협회와 함께 여기서 연을 날리는 건 새해를 기원하고 우리 길림시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구요.”

윤원길은 일부 연은 날리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모여 서로 도우며 경험을 나누면 아무리 어려운 연도 무사히 하늘에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은 항상 첫번째 원칙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근부 규칙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리기를 멈춥니다. 자신은 물론 구경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곁에 있던 몇몇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을 표했다.

점점 더 많은 연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인민광장 상공은 연 전시장이 되었다. 60여명방미터의 거대한 가변 연은 위풍당당했고 장수 로인 모양의 연은 눈썹과 눈이 선명하고 생생했으며 경극의 운치와 연 기술을 교묘히 융합하여 관중 민속의 정교한 솜씨를 드러냈다.

나비, 잡자리 등 전통 연은 가볍고 날렵하게 바람에 살짝 떠는데 마치 숲속 요정 같고 대왕 문어, 삼엽충 등 연체 연은 복잡한 빼대 없이 바람 타고 몸을 펴며 령기적이고 귀여운 모습으로 공중에서 흔들거리며 구경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

을 찍으며 환호하게 했다.

길림시연운동협회 회장 리걸은 인파 사이를 오가며 수시로 멈춰서서 연날리기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 연날리기대회에 대해 그는 “우리는 100여명 회원을 조직하여 200여점의 관중 특색 연을 가져왔는데 판자류, 연체, 경이류 등 6대 범주를 포괄하며 모두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길림 전통 연은 이미 강성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민속 기억과 문화적 정서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는 매년 설에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집을 나와 야외에서 새해의 열기를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관동 연 문화를 리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걸은 연 날리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힘을 잡고 연을 날리기만 하면 모든 고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연은 강성의 문화와 관광 융합의 ‘작은 사절’이 되어 여러차례 무송축제, 빙설축제, 룡주경기 등 활동에 힘을 보태며 ‘하늘을 독점하는’ 장점으로 외부에 강성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늘 가득한 이 연처럼 날로 풍성하고 말따해에 길하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길림시연운동협회는 1988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등록 회원이 730여명에 이른다. 회원중에는 윤원길처럼 오랜 기간 꾸준히 활동해온 로년층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도 가입하고 있다.

정오 11시 30분, 연 날리기가 점차 마무리되며 시상식이 예정대로 거행되었다.

최우수 제작상, 최우수 효과상, 최우수 공연상 등 여러 상이 각기 주인을 찾았고 수상한 사람들은 트로피와 증서를 들고 더없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길림일보

영길현조선족민속협회 정월대보름 웃놀이 행사 개최



웃놀이판에서 덩실덩실 춤 나온다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길현조선족민속협회(회장 한우선) 회원 40여명은 구정진에서 전통 웃놀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갈한 조선족 전통 복장과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을 찾았다. 다섯팀으로 나뉜 회원들은 “모야!”, “도야!” 함성과 함께 흥겹게 웃놀이를 즐겼다.

한우선 회장은 “대다수 회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며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회원간 유대감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영길현조선족민속협회는 지난 한해 영길현당위 통전부, 현민족 사무위원회, 현문화관 등 관련 부문에서 주최한 문예공연에 참여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으며 이 공로로 현텔레비전방송국과 현문화관으로부터 영예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후에는 회원들이 각자 준비한 오락밥과 산나물반찬 등으로 점심을 함께 나누며 회포를 나누었다. 이어 즐거운 무도회 시간도 가졌다.

/김학선, 문창호특약기자